

‘무주공산’ 진도군수 쟁탈전 치열...9명 난립 양상

현 군수 3선 연임 제한으로 후보군 난립 양상 출마예정자 9명·적은 표차로 당락결정 가능성 노장년층 표심 확보가 관건·민심 잡기 총력전

6·1지방선거 전남 진도군수 선거는 이동진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후보군이 9명에 이를 만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주공산을 차지하려는 입지자들이 일찌감치 몰려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역대 선거와 비슷하게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어느 입지자가 노장년층 표심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천타전 거론되는 후보군으로는 김희수(66·무소속) 전 진도군 기술서기관, 이재각(61·민주당) 전 총북지방병무청장, 박인환(67·민주당)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김상현(62·민주당) 진도군의회, 이양래(64·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윤식(68·민주당) 전 목포시 관광경제국장, 박광렬(63·민주당) 전 고군면장, 이한주(66·민주당) 정당인, 차현지(58·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 등이다.

육군 준장 출신인 이 전 병무청장은 군과 정부를 오가며 쌓은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다. 지난 1981년 소위로 입관해 34년간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2015년 전역했다. 총북병무청장 재임 당시에는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병무청장은 군인 출신답게 추진력을 발휘해 진도군의 지방자치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기무부

대장, 국방부 기무부대장·보안처장, 명지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전 기술서기관은 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 분야의 오랜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진도 인구의 80%가 농·수산 분야 종사자다.

김 전 기술서기관은 진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진도군에서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민생 문제를 쟁겼다. 그는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김 전 기술서기관은 산림과장, 진도읍장, 군내면장, 지산면장, 조동면장 등을 역임했다.

지방과 중앙 행정을 두루 섭렵한 박 전 특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자랑한다. 고군면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지난 16년간 지방 행정 분야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중앙선관위, 광주시선관위, 전남도선관위, 제주도선관위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각 정당과 정치권은 물론 정부 기관 등 인사와 폭넓은 인연을 맺고 있다. 퇴직 후에는 진도에 행정사 사무실을 열어 지역민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박 전 특별위원은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열고 고향 발전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지역 사람이 남다른 인물이다. 제7대 전남도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지역민과 접촉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진도군의회로 선회한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그는 제7대 군의회 부의장에 이어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김 의장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다. 전남 22개 시·군 의정단을 진도에 초청해 시·군 의회와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도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기여했다.

개인적으로는 제28회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지방의정대상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전 목포시 국장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관광경제국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다.



이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업무 추진력이 최대 장점이다. 그는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진도읍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입지자로 거론되는 박 전 고군면장은 진도군 안전건설과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고성중 총동문회장, 진도로타리클럽 회원, 이재명 대통령후보 전남공동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정당인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보배섬' 진도인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유일한 국민의힘 입지자인 차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회 경제발전 총괄본부 전남도 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진도=조상용기자

무안군수, '정치·행정' 관록 vs 30~40대' 젊은 피의 격돌

김산 재선 가도에 전·현직 지방의원 등 도전 30~40대 초선 군의원 개혁·혁신 주장 출사표 민주당 6명...자유민주당 김팔봉 예비후보 등록

오는 6월 치러지는 전남 무안군수 선거에는 재선에 나서는 김산 군수에 맞서 전·현직 지방의원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거친 관록과 30~40대 젊은 피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현재 무안군수 출마 예상자로는 김산 현 군수를 비롯해 강병국 무안군의원,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 이정운 무안군의원,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이다. 이들과 함께 자유민주당 김팔봉 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재선 무안군의원 출신으로 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산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본선에 올라 당선됐다. 군수로 취임한 후에는 항공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등 무안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향후 국가항공산업단지과 항공물류 등을 주력으로 하는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전임 군수의 불명예 퇴진 후 군정을 맡아 안정적인 행정에 역점을 두고 무난하게 군정을 수행했다는 평이다. 김 군수의 군정 능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생산성 대상'과 '행정역량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무안군수 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영덕 전 전남도위원의 재도전이다. 정 전 도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공천 취소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루'건이 사법기관에서 무죄로 종결돼 명예는 회복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예전의 지지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전남도에서 도시계획전문위원으로 20년간 근무한 정 전 도의원은 최근 출마 기자회견에서 무안반도 통합과 무안국제공항 국제물류 유통 허브공항 전환, 공항 인근 1만 명 거주 신도시 건설, 통합시청사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정운 무안군의원도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는 소극적이고 정체된 행정을 벗어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무안 군정을 기치로 출사표를 던졌다. 재선 무안군의회로 무안군의회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 전 의장은 23년간 무안군에서 전반기 3년 10개월 간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무안은 잠재력은 매우 풍부하다"면서 "철타워 들듯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한 무안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젊은 피 김대현 무안군의회장과 강병국 무안군 의원은 혁신과 개혁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졌으며, 최옥수 전 산림조합장도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장은 초선이지만 역대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되는 정치력을 앞세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청년회와 사회단체,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폭넓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출마의 일성으로 '무안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빠를 낚는 혁신만이 무안을 바꿀 수 있다"면서 "새로운 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이자 30대의 강병국 군의원도 개혁정치를 표방하며 군수 출마를 공식화한 채 표심 공략에 분주하다. 김 의원은 "현재 무안군은 절체절명,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시 승격을 통해 무안이 서남권의 산업,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지자를 결집하는 등 후보 대열에 합류했다. 최 전 조합장은 부실관리조합이던 산림조합을 2년만에 흑자경영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최 전 조합장은 대기업 유치로 인구 20만 자족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도·농 복합도시인 무안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한 자유민주당 김팔봉 전 사무국장은 "무안시 전환을 지역변영과 미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으로 무안군 번영과 잘사는 군민을 위해 참된 민생일꾼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4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